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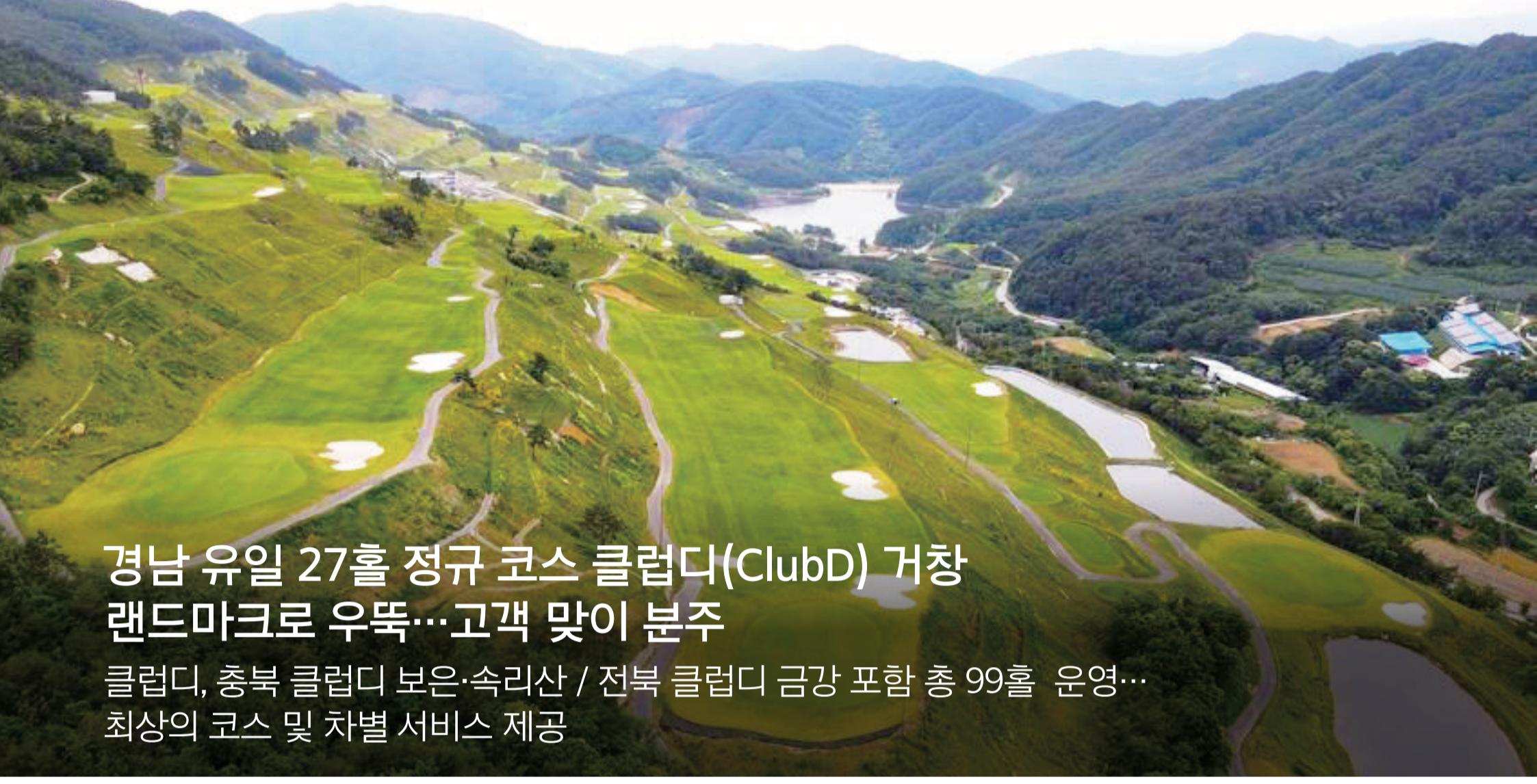
CLUBD

Destination & Differentiation

Summer I 2021



클럽디 거창 EAST 4번홀



경남 유일 27홀 정규 코스 클럽디(ClubD) 거창 랜드마크로 우뚝…고객 맞이 분주

클럽디, 충북 클럽디 보은·속리산 / 전북 클럽디 금강 포함 총 99홀 운영…
최상의 코스 및 차별화 서비스 제공

경상남도에 위치한 유일한 27홀 정규 퍼블릭 코스인 클럽디(ClubD) 거창이 새 단장을 완료하고 골프의 재미를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인 (주)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가 운영 중인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는 네 번째 골프장인 클럽디 거창의 코스 월러티 개선 및 차별화 서비스를 완료하고 고객 맞이를 본격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클럽디(CLUBD)’의 ‘D’는 퍼블릭 골프장의 최종 완성 또는 종착지인 ‘Destination’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Differentiation’을 뜻한다. 기존 퍼블릭 골프장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차별화된 즐거움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감각을 지닌 고품격 퍼블릭 골프장을 선보이겠다는 경영 철학이 녹아있다. 앞서 클럽디 거창은 지난해 이도의 인수를 통해 약 10년 만에 정식 오픈한 이후 최상의 코스 월러티를 위해 개선 공사가 이뤄졌다. 약 7개월간 티잉 그라운드 및 페어웨이, 그린 등 전체적인 코스에 대한 잔디 보식 작업 및 그린스피드 개선 작업 등이 진행됐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골퍼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다.

클럽디 거창 27홀의 전장은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9,588m(10,485yd)로 블라인드 홀이 없는 장점이 있다. 코스별로 EAST 코스 (3,265m, 3,570yd)는 시원한 장타를 원하는 골퍼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으며, WEST 코스(3,117m, 3,408yd)는 정교한 샷을 요구하는 코스로서 곳곳에 숨겨진 장애물을 극복하며 골프의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SOUTH 코스(3,206m, 3,506yd)는 시원한 비거리를 원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홀마다의 느낌이 전혀 다른 흥미로운 코스로 디자인됐다.

클럽하우스 및 라커룸 등 편의시설은 현대적이면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적화했으며, 여성 고객을 위해 세련된 파우더룸도 설치됐다. 또한, 클럽디 거창은 거창 지역민 할인, 조식 이벤트, 포토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클럽디 거창은 거창 IC에서 약 15분 거리로 대구, 창원에서 1시간이 걸리는 편리한 접근성도 갖췄다.

한편, 클럽디는 현재 경남 클럽디 거창을 비롯하여 충북 보은에 위치한 클럽디 보은(18홀), 속리산(18홀), 전북 익산에 위치한 클럽디 금강(36홀) 등을 포함하여 전체 4개 사업장, 총 99홀 규모를 전문 운영 관리하고 있다. 특히, 매년 경기 파주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의 서원힐스와 협업하여 최대 규모의 여성 골프 대회 개최 등 국내 골프 문화를 지속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정훈(주)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골프장에 투자를 원하는 금융회사와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원하는 소유주들의 니즈에 맞는 차별화 된 골프장 밸류업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고 있다”며 “회원제 수준의 골프 서비스와 함께 골프의 재미를 더욱 누릴 수 있는 명품 퍼블릭 골프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 ClubD MAGAZINE



여성 골프 고수 모여라!...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 개최

오는 7월 서원힐스, 클럽디(CLUBD) 보은/속리산/금강/거창 등 5곳서 예선 시작
프로 참가 최종 왕중왕전 거쳐 우승자 가려 … 총상금 ‘4억원’ 상당 역대 최대 규모



숨어있는 여성 아마추어와 프로 골퍼를 위한 골프 대회가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개최돼 골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 10대 코스로 선정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의 명품 퍼블릭 ‘서원힐스’와 국내 유일의 밸류업 (Value-Up) 전문 플랫폼 기업인 (주)이도(YIDO)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는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은 코로나19로 지친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당당한 삶을 원하는 여성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상금 규모는 4억 원 상당으로 지난해에 이어 골프장 주최 최대 규모로 열린다. 지역 본선 대회 참가자 선정을 위한 각 지역 연습라운드가 5월부터 시작된다. 예선전은 오는 7월 15일부터 스트로크 방식으로 경기도 파주 서원힐스(200명) 및 충청북도 보은에 위치한 클럽디(CLUBD) 보은(80명)과 클럽디 속리산(80명), 전라북도 익산 클럽디 금강(80명), 경상남도 거창(80명) 등 총 5곳에서 각각 진행된다.

또한, 지역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 명품 퍼블릭 골프장인 서원힐스(100명) 및 충청북도 클럽디(CLUBD) 속리산(120명)에서 결선을 각각 진행한 후 총 32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32명에게는 오는 10월 전북 클럽디 금강(CLUBD)에서 열리는 통합 왕중왕전 1라운드에 진출하는 자격이 주어지며, 스트로크 방식을 통해 총 8명의 2라운드 진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대망의 왕중왕전 2, 3라운드 및 결승은 서원힐스에서 진행되며, 경기 방식이 팀 매치플레이로 변경돼 경기의 박진감과 재미가 더욱 늘어난다. 프로와 아마추어 각각 1명씩 팀을 구성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결을 진행하고, 8강과 4강, 결승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특히, 지난해 우승자인 조연희 프로, 준우승을 차지한 김도하 프로 및 3위 마소라 프로 등이 올해도 참가해 여왕의 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이번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의 시상 규모는 국내 골프장 주최 여성 대회로는 사상 최대인 4억 원 상당이다. 통합 왕중왕전 최종 우승팀에는 6,000만 원 이상의 상금과 시상품이 주어진다.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의 참가 접수는 오는 7월 15일까지 서원힐스와 클럽디 홈페이지에서 각각 진행되며, 필드 라운드 스코어 등록을 통하여 예선전 진출자가 가려진다. 참가 자격은 20세 이상 인터넷 회원 여성 골퍼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이번 대회는 전문 골프 채널인 SBS골프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제5회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 골프 챔피언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원힐스(www.seowongolf.co.kr) 및 클럽디 (www.clubd.co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 | ClubD MAGAZINE





산 위의 쉼터인 시그니처 홀 클럽디 거창 'EAST 4번'

티잉 그라운드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기분 전환 하시고, 넓은 시야 확보로 자신감 있게 티 샷 할 수 있는 PAR 5홀입니다. 티샷은 페어웨이 중앙으로 공략하시고, 세컨드 지점부터 그린까지 고저 차가 30M이므로 정확한 거리 계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컨드 샷은 그린 중앙보다 좌측 끝을 공략하시고 그린 좌·우에 위치한 벙커만 조심한다면 충분히 투온이 가능하며 좋은 스코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홀입니다.



코스제원: PAR 5홀, 480m(화이트 티), 400m(레드 티)
코스기록: 버디 142회 / 파 2,106회 / 보기 6,568회 / 더블보기 6,704회

글 | 박희정 클럽디(ClubD) 거창 경기 팀장



정직한 플레이를 요구하는 클럽디 보은 'EAST 5번'

페어웨이 끝에 보이는 연못이 클럽 선택에 갈등을 제공하는 다소 고민스러운 홀입니다. 충분한 거리정보를 얻은 후 클럽 선택을 해야 하며 최단 거리인 페어웨이 좌측을 공략할 시 또 다른 자연림이 방해될 수 있어 정직한 플레이가 최선인 홀입니다. 그린이 작고 아담하며 그린 뒤쪽 양옆으로 미키 마우스의 귀를 닮은 작고 양증맞은 벙커 2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 여유 공간이 없음으로 세컨드 샷은 거리에 맞는 정확한 클럽 선택이 온 그린을 할 수 있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코스제원: PAR 4홀, 346m(화이트 티), 282m(레드 티)
코스기록: 이글 21회 / 버디 3,330회 / 파 39,684회 / 보기 62,082회 / 더블보기 49,785회

글 | 허현숙 클럽디(ClubD) 보은 경기 팀장



노을이 아름다운 마지막 홀 클럽디 금강 'WEST 9번'

클럽디 금강의 WEST 9번 홀은 마지막 홀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홀입니다. 전장 480M의 PAR 5홀로 티샷 시 좌우 해저드와 벙커를 주의 하여야 하며 세컨드 공략 시 페어웨이를 지키는 전략적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공략 방향은 좌측 벙커 방향이 좋습니다. 클럽디 금강에서 라운드를 마치며 아름다운 노을까지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코스제원: PAR 5홀, 480m(화이트 티), 398m(레드 티)
코스기록: 앨버트로스 1회 / 이글 56회 / 버디 3,642회 / 파 69,571회 / 보기 41,551회

글 | 최은숙(ClubD) 금강 경기 마스터



투온을 노리는 도전적인 홀 속리산 'WEST 8번'

지난 6월 21일 클럽디 속리산에서 첫 앨버트로스가 탄생한 홀입니다. 좌측 카트길 방향으로 넓은 장미와 우측 경사면으로 노란 금계국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홀입니다. PAR 5홀로 상대적으로 넓은 페어웨이로 시작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왼쪽으로 휘어진 코스와 두 개의 해저드가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코스 공략이 필요합니다. 투온에 도전하시려면 티샷을 페어웨이 우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으며, 두 번째 해저드의 압박감을 이겨 내야 합니다. 세컨드에 멋진 샷을 보여주신다면 비교적 쉬운 그린이기에 이글과 버디를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입니다.



코스제원: PAR 5홀, 470m(화이트 티), 410m(레드 티)
코스기록: 앨버트로스 1회 / 이글 83회 / 버디 4,730회 / 파 40,525회 / 보기 64,558회

글 | 남승미 클럽디(ClubD) 속리산 경기 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충북 보은 랜드마크 ‘클럽디 보은’ 레스토랑

광활한 자연 속에서 라운딩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클럽디(ClubD) 보은은 대한민국 중앙부에 있는 충청북도의 남동부에 자리 잡고 있어 어디에서나 부담 없는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자연 속에서 최고의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클럽디 보은은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듯 광활한 전경으로 자연 본연의 모습 그대로 홀을 만들고 자연 계곡을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 계류와 연못을 재생하였다. 최고의 힐링 골프를 즐겨볼 수 있는 클럽디 보은의 음식은 ‘김민섭 셰프’가 담당하고 있다.

젊은 골퍼들이 늘고 라운딩 족 취향이 다양해지는 요즘 특색 있는 먹거리를 내세우는 골프장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런 니즈를 잘 파악한 김민섭 셰프는 클럽디 보은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유명 레스토랑 못지 않은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김 셰프는 리츠칼튼, 반얀트리 등 호텔 레스토랑 요리 경력만 11년 차의 베테랑이다. 특히 풍부한 한식 조리 경험을 갖췄으며, 2013년 대한민국 향토 식문화 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 체력 보충을 위해 그가 골퍼들을 위해 선보인 메뉴는 ‘냉채족발’이다. ‘냉채족발’은 클럽디 보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기 메뉴이다. 일반 족발보다 더 쫄깃한 맛으로 신선한 과일을 사용하여 만든 겨자 소스가 야채와 족발이 어우러져 시원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다. 그가 여름철 시원한 음식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클럽디 보은만의 또 다른 메뉴는 ‘명태회 비빔 메밀막국수&납작 군만두’이다. 입맛 없는 요즘 시원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메밀막국수는 더위에는 날씨에 먹기 딱 좋은 음식이다. 특히 시원한 메밀면 특유의 향과 명태회, 각종 야채가 비빔소스와 잘 어우러져 단품 식사로 제격이다. 피로 해소에 좋은 복분자와 여러가지 열대 지방의 과일이 어우러져 시원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복분자 과일화채’도 인기 메뉴다. 글 | ClubD MAGAZINE



INFLUENCER INTERVIEW

탁구 금메달리스트에서 가장 젊은 스포츠 협회장 ‘맹활약’

유승민 IOC 위원 겸 탁구협회장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대한민국 남자 탁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인물이다.

현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자 대한탁구협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스포츠 행정가로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도쿄 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행정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Q.ClubD :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유승민 :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IOC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Q.ClubD : IOC, 대한탁구협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유승민 :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경기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국제스포츠 기구로 가장 큰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멤버가 전 세계 약 100여명 되는데 그 중 대한민국 멤버가 2명 있습니다. 한 분은 대한체육회장 이기황 회장, 또 한 명은 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8년으로 2024년 까지 임기를 하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 외에도 선수들의 권익과 복지, 다양한 전 세계 스포츠의 왕권을 다루고 있는 기구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대한탁구 협회장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한탁구협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탁구의 가장 큰 조직이고, 현재 두 번째 회장을 맡아 2024년까지 활동하며 전문 체육, 생활체육 등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ClubD : 현재 IOC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일과나 책임 임무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유승민 : 우선은 IOC 위원은 해외 활동이 아주 많아요. 2018년 까지만 해도 180일 정도를 해외에 있었을 정도니깐 거의 반 정도는 해외에 있었던 셈이죠. 최근 코로나 이후로는 해외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업무는 이메일과 전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과는 보통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서 체육발전을 위한 이야기들을 논하면서 조언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탁구협회장이기 때문에 스폰서십, 대회, 이벤트 방문, 학회발표 및 축사 등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Q.ClubD : IOC 위원이 되기까지 큰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를 하셨는지요?

A.유승민 : 책임감을 요구하는 위치이기에 준비부터 활동 자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개인의 순수보단 선수들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는 편입니다. 선수만 25년을 했기 때문에 행정경험 등 다른 분야의 경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어서 IOC 위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Q.ClubD : 그럼 선수로 25년, 지도자로 2년, 행정가로 5년을 활동 하셨는데 느끼시는 큰 차이점이 있으실까요?

A.유승민 : 선수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은퇴 시기를 정해놓고 운동 하진 않잖아요.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다음 기회가 있고 저 혼자만 캐어를 잘하면서 되는데, 지도자는 선수들을 다 캐어하면서 그 선수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가는 선수 밖 지도자들이 쟁기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파악해서 선수가 최대한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선수로서, 지도자로서, 체육인으로서, 스포츠인으로서 누려야 될 환경들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더 큰 틀에서 볼 땐 행정가가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습니다.

Q.ClubD : 선수 경험이 업무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A.유승민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올림픽에서 중심이 되는 게 선수거든요. 선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선수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 자체가 제가 활동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갖고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Q.ClubD : 개인적으로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힘드셨나요?

A.유승민 : 사실 금메달 따는 게 훨씬 힘들죠. 하지만 선수 때는 성취감과 명확한 목표가 있는 반면, 행정은 명확한 목표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행정은 완전히 완성될 수 없기에 저 스스로는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욕을 먹는 등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의 결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 활동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또한 의사결정 구도 자체도 빨라지고 기본적인 정책이나 방향은 웬만한 실무진보다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Q.ClubD : 이 직책에 있어서 가장 도전이 되는 부분 즉,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A.유승민 : 기대가 커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자신이 즐기는 종목 또는 기대가 큰 종목에서 사건·사고들이 일어난다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채찍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채찍질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찍질은 받되, 우리가 자성은 해야 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고쳐나가고 그로 인해서 변화했을 때 채찍질했던 사람들도 정말 변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유대관계가 있어야지 서로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악의적으로 꺾아내리기만 하는 채찍질이 종종 보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Q.ClubD : 올림픽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죠. 올림픽 준비 철하고 계시는가요?

A.유승민 : 올림픽 39일 남았는데 올림픽은 진행돼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움츠러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올림픽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올림픽이 잘 끝난다면 전 세계에 있는 기관들이나 조직들이 올림픽을 지표 삼아서 각종 이벤트를 하려고 할 거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ClubD : 골프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골프 좋아하시나요?

A.유승민 : 골프는 시작한 지 5~6년 정도 되었어요. 골프는 운동 중에 장시간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Q.ClubD : 그럼 탁구가 쉬운가요? 골프가 쉬운가요?

A.유승민 : 저는 어느 정도까진 골프가 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입문해서 80타를 찍은 그때와 인턴님이 탁구에 입문해서 아마추어 레벨이 1~5등급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3등급까지 가는 속도가 골프가 훨씬 빨라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제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랬어요.

Q.ClubD : 탁구랑 골프 스윙 비슷한가요?

A.유승민 : 원리만 비슷해요. 가장 애먹었던 점이 골프는 정적인 운동인데 탁구는 동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정적으로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Q.ClubD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A.유승민 : 올림픽을 선수단이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또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체육계 전반의 관행이나 관습들을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건강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 ClubD MAGAZINE



ESG의 중요성과 함께 PBF(Plant-Based Food, 식물성 대체 식품)의 ‘부상’



글 | 정영주 하나금융투자 CLUB1센터 부장

최근 글로벌 음식료 시장의 흐름은 PBF(Plant-based Food) 식물성 대체 식품 및 밀키트라고 볼 수 있다. 약 2년 전 밀키트에 대한 주제로 글을 게재했는데, 코로나 19로 밀키트는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육류 공급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대체 육류를 중심으로 PBF 역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고에서는 대체 육류 등 식물성으로 만든 대체 식품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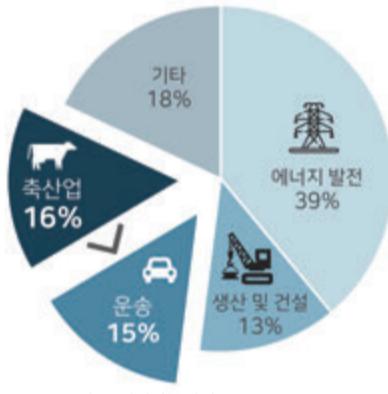
작년 5월 미국 최대의 육류가공회사인 타이슨푸드의 아이오와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공장이 폐쇄된 적이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 추가로 두 곳, 브라질, 캐나다 육가공업체도 셧다운이 됐다. 미국, 브라질, 캐나다 이 세 국가는 전 세계 육류 유통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당연히 공급에 큰 타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향후 안정적인 육류 공급은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 19 현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 문제의 중요성으로 대체 육류 등 식물성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현재 식물성 대체 음식 시장은 글로벌 시장 규모가 3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CFRA에 따르면 2018년 약 22조 원이었던 글로벌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30년에 약 116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PBF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소비의 핵심으로 성장할 MZ세대를 중심으로 환경과 기후변화에 민감해진 영향이 크다. MZ세대는 2030년까지 세계 노동인구 중 약 75%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소비 시장 흐름의 주요 세대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으며 먹거리 소비에 친환경과 윤리성을 중시하고 있다. 한 예로 글로벌 경제 매체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MZ세대 대상 설문조사 보도 중 ‘일주일 중 일부 식사는 육류를 섭취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79%에 달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ESG(사회·환경·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투자가 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의 식생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육식 위주의 식습관에서 탈피하려는 사람의 증가와 더불어 단순 영양소 균형을 넘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 요소를 중시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부문별 비중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기준)

“소고기 1kg 생산 시, 4시간 자동차 운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운송/교통으로 인한 배출량을 상회”



자료: Eat Just 조사, 유엔식량농업기구

단위 단백질 당 소요 자원 및 유해물질 배출량 비교 (단백질 1g 당)



“좀 더 건강한 음식 섭취를 위해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단위 %)

No 12%

Yes 88%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해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단위 %)

No 23%

Yes 77%

*목초란(pastured eggs) 초원에 방사하며 키우는 닭의 계란

자료: OnePoll 조사 (2020년 7월, 미국인 n=2,000), Meticulous Research, Our World in data, Nielsen,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실제 이미 미국에선 ‘비욘드미트’, ‘임파서블풀프드’ 등 글로벌 대체육 전문 기업들은 식품 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2011년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임파서블풀프드는 지난 2020년 1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육식 종말’을 선언하며 관람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임파서블풀프드는 현재 버거킹과 스타벅스에 식물 유래 대체육을 공급하고 있다. 비욘드미트의 경우 작년 8월 미국 KFC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식물성 치킨으로 만든 너깃과 뼈 없는 닭 날개 제품을 시험 판매했고 5시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그 이후 미국 KFC는 닭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치킨 너깃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현재 비욘드미트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며, 기업 가치는 무려 10조 원이 넘은 상황이다. 이 두 회사의 목표는 채식주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인조고기로 가공육을 대체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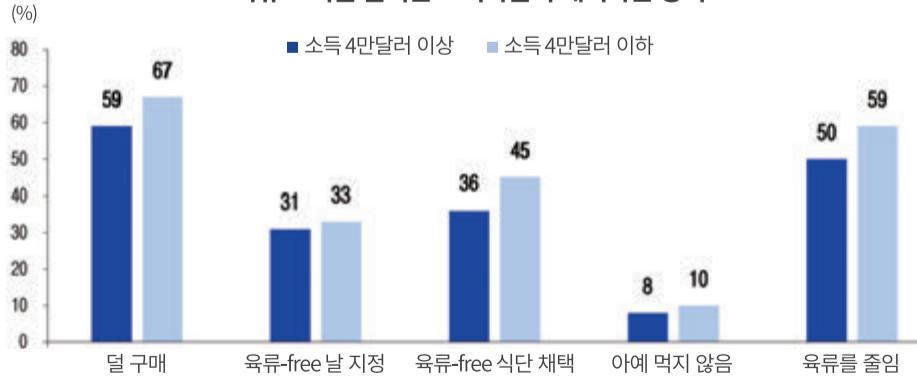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롯데리아가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 최초로 식물성 육류와 빵, 소스로 만든 ‘미라클 버거’를 출시해 100만 개의 패티가 판매되기도 했다. 롯데 제로 미트는 ‘베지함박’이라는 브랜드로 너깃, 크로켓, 햄버그스테이크 등을 출시한 상황이며, 노브랜드 버거 역시 올해 4월 노치킨 너깃을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PBF 시장은 식물성 대체육 중심에서 벗어나 대체 계란 등 배양육(Cultures Meat)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잇 저스트가 있는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제리 양 애후 창업자, 홍콩 최대 부호 리카싱 등이 투자한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SPC삼립이 아시아 사업 파트너로 참가했다. 대표 제품 ‘저스트 에그’는 녹두에서 추출한 식물 단백질로 달걀 맛을 낸 제품인데, 친환경적인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미국·중국·홍콩·싱가포르 등지에서 3000만 개가 판매됐다. 아울러 맥킨지 서베이에 따르면 저스트에그의 냄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없었으며 맛과 텍스처에 대한 긍정 대답은 각각 69%, 76%에 달했다. 부정적인 의견은 6%, 3%에 낮은 수준에 그쳤다. 미국인들이 매일 아침 계란을 섭취하는 비율이 65%로, 전 세계 계란 시장 규모는 약 130조 원, 관련된 시장만 약 280조 원인 것을 고려할 경우 대체 계란 시장은 지속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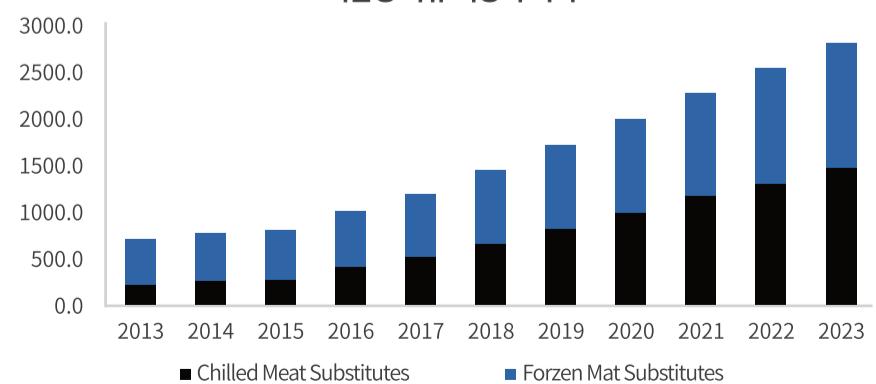
이렇게 PBF 시장은 향후 더욱 성장할 것은 자명해 보이며, 환경적인 가치를 고려했을 때 더욱 연구 개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축산업은 인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와 맞먹는 수준이며, 야생동물 등 수천 종의 다양한 생물들을 감소시켜 기후 위기까지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는 축산업을 위한 산림 및 양생 지역 파괴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요인이라고도 말하기로 한다. 개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선 육류 및 계란의 대체 식품을 개발은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인 중국에서도 대형 육류 업체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 보호와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날을 기대해본다.

육류 소비를 줄이는 소비자들이 채택하는 방식



자료: Public Health Nutrition Journal: March 2018, Bloomberg,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식물성 육류 시장의 기회



자료: Euromonitor Passport,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정훈 (주)이도(YIDO) 대표이사,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YIDO)의 최정훈 대표이사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인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공익 릴레이 캠페인이다. 참가자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가 담긴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래은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최 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이사와 최민호 넥시스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최정훈 대표이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 아이들의 교통 안전 문화가 더욱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당사는 ESG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주요 민자고속도로 및 터널, 교량 등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화를 확대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이도는 국내 두 번째 민자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 용인~서울 고속도로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 수원~광명 고속도로 ▲ 부산 수정산터널 ▲ 창원 팔룡터널 등 주요 민자 고속도로 및 장대 터널을 운영 중이다.

최 대표는 지난 2014년 금융 구조화와 전문 운영관리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밸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주)이도를 창립했다.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여 현재 금융시장 등에서 젊은 창업가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부동산과 인프라 분야 전문 운용사인 한강에셋자산운용의 창업자이자 의장이기도 하다. 글 | ClubD MAGAZINE

'탄소 배출 제로' 향한 이도의 작은 움직임 태양광 에너지 활용 소각장 운영

환경 전문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다. (주)이도는 경기도 그린오산 소각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으로 산업 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나선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27톤의 CO2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방침이다. 특히,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소각장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는 것은 이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폐기물 사업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이도는 이번 그린오산 소각장을 기점으로 향후 타 사업장에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ESG 경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재 이도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톱 수준의 산업폐기물 처리 업체인 인천에 있는 수도권 환경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이도의 운영 이후 수도권 환경의 하루 폐기물 처리 규모는 이전보다 약 3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미세먼지를 절감하는 사업장으로 탈바꿈됐다. 또한, 제주지역에 하루 2,80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인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 지역에 친환경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전라 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 소각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까지 이어지는 산업폐기물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최정훈 (주)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산업폐기물 밸류체인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육성을 통해 친환경 전문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 제로화 목표를 위한 다양한 경영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ESG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도는 ESG 경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가적 문제가 됐던 20만 톤 규모의 '의성 쓰레기산' 처리 문제에도 동참했다. 의성 쓰레기산은 1년 9개월 만인 지난 2월 중순 전량 처리가 완료됐다.

글 | ClubD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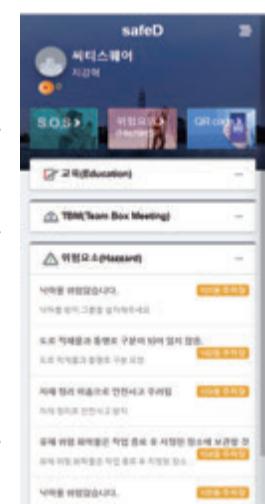
건설 현장 안전지킴이 나선 밸류업 플랫폼 이도, 세이프디(SafeD) 2.0 선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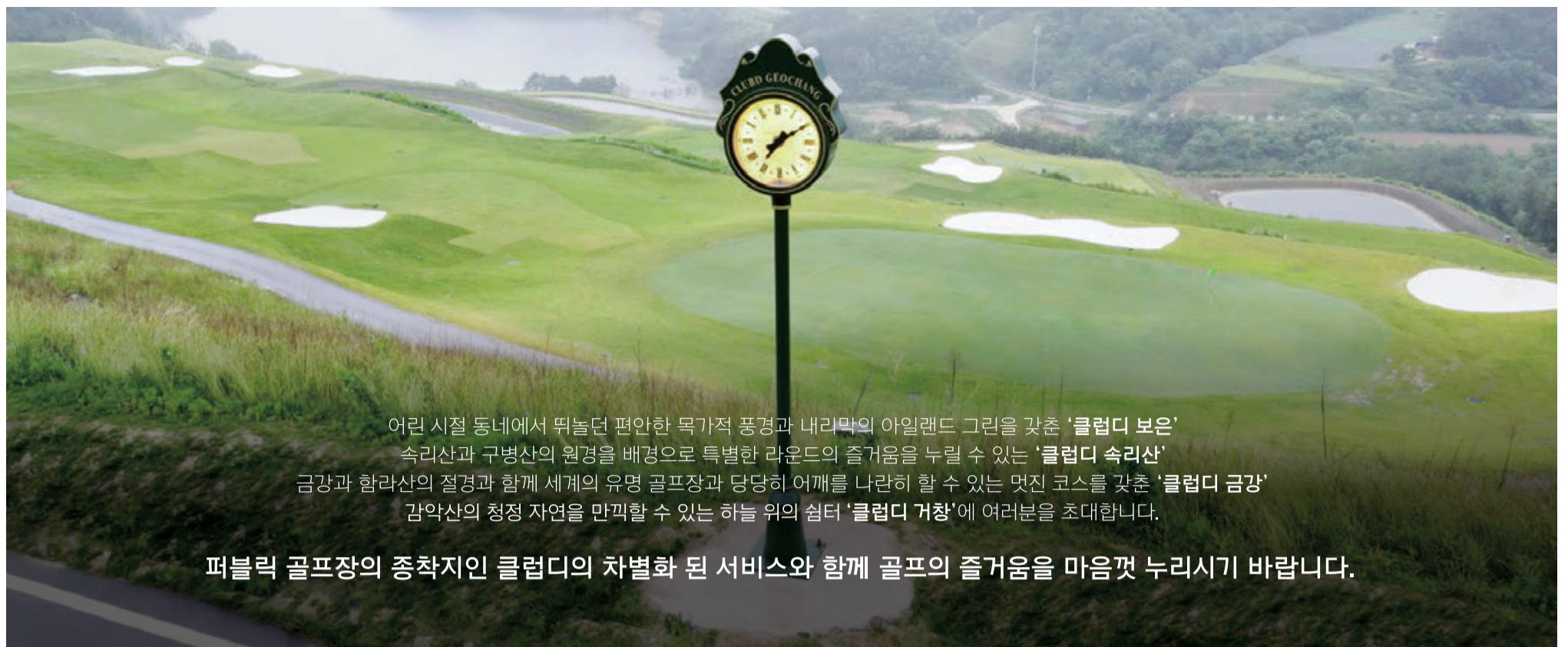
비콘(Beacon) 기반 위험지역 안내 기능 탑재...

각종 산업 현장 안전관리 효율성 업그레이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사 등 각종 산업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쉽고,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출시됐다. 국내 유일의 밸류업(Value-Up) 전문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이도(YIDO, 대표이사 최정훈)는 산업 현장 사고예방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관리 솔루션 '세이프디(SafeD) 2.0'을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세이프디 2.0'은 기존 버전보다 안전관리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출시된 '세이프디 2.0'의 경우 GPS와 더불어 비콘(Beacon) 기술을 추가로 업그레이드해 지하 및 터널 등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 때문에 구조물이 복잡한 물류센터 등에서도 더욱 정교한 감지율을 통한 위험 경고 및 자동 알람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현장의 위험 요인과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돼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종점점검활동, 추가위험발굴, 안전일지 등 각종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더욱 쉽게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관리를 고려해 다국어 지원도 가능하다. 구글 AI 번역기를 통해 120개국 언어로 실시간 번역돼 다국적 근로자가 많은 현장에 매우 실용적이다. (주)이도는 이번 '세이프디 2.0'을 통해 기존 건설 현장을 넘어 사업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산업현장까지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세이프디는 약 80곳의 공사 현장에서 적용 중이며, 지속해서 적용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출시된 세이프디(SafeD)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PC 및 모바일 통합 애플리케이션이다.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위험성 평가 회의나 안전점검 조치 결과를 신속하면서도 편리하게 기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표준위험공종 약 2만 5000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화 해 회의록 작성 시 한 번의 클릭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세이프디를 활용하면 안전관리에 대한 과도한 비용 지출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최정훈 (주)이도 대표이사는 "당사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전문 기업으로서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핵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 기업"이라며 "세이프디 2.0 출시를 통해 산업 현장의 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더욱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글 | ClubD MAGAZINE





어린 시절 동네에서 뛰놀던 편안한 목가적 풍경과 내리막의 아일랜드 그린을 갖춘 '클럽디 보은'
속리산과 구병산의 원경을 배경으로 특별한 라운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클럽디 속리산'
금강과 함라산의 절경과 함께 세계의 유명 골프장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멋진 코스를 갖춘 '클럽디 금강'
감악산의 청정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하늘 위의 쉼터 '클럽디 거창'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퍼블릭 골프장의 종착지인 클럽디의 차별화 된 서비스와 함께 골프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SEOWON CLUB D LADIES GOLF CHAMPIONSHIP

5th SEOWON CLUB D LADIES GOLF CHAMPIONSHIP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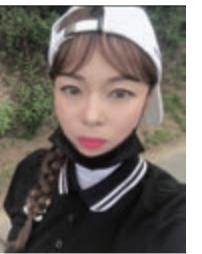
서원 · 클럽디 레이디스골프챔피언십

예선전 우선시드 랭킹전 5.4(화)~7.15(목)
예선 금강7.15(목) 속리산7.20(화) 보은7.22(목) 거창7.27(화)
결선 속리산9.6(월)
통합 왕중왕전 32강 10.11(월), 14(목)

서원·클럽디 CHAMPION

DAEBO SEOWON VALLEY YIDO CLUBD

ClubD 우수캐디



임지애 ClubD보은(경력11년)
안현진 ClubD속리산(경력5년)
윤영민 ClubD금강(경력17년)
유정은 ClubD거창(경력15년)

프라이빗 이동서비스, 무브

골프장부터 출장까지 이동이 필요할 땐, 무브
특별한 확인혜택으로 KTX예약도 편리하게!

무브골프 문의: 1877-2025

- 일행 모두 DOOR TO DOOR 서비스
- 라운딩 후 출장을 걱정없이 안전하게!
- 시원한 맥주 한 잔도 다함께!

무브골프

무브비즈니스 문의: 1877-2024

- 여러 장소도 DOOR TO DOOR 서비스
- KTX + 무브로 전국 어디든 편안하게!
[KTX 최대 50% 할인, 요일/시간대별 상이]
- 업계 가격 경쟁력 최고 수준!

무브 8시간 185,000원 부터	시간당 20,000원 / 1km 200원
타사 8시간 217,000원 부터	시간당 27,000원 / 1km 300원

We Are Here For Your Greater Life

밸류업(Value-Up) 플랫폼 기업 (주)이도(YIDO)가 운영하는
골프 클럽 브랜드 클럽디(ClubD)와 SBS골프는 공동으로 비영리단체 퍼스트티(First Tee)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어린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후원에 나섭니다.

YIDO CLUBD first tee SBSGolf

제주를 담은
제주를 담은
제주맥주



BREWED IN JEJU, KOREA

jejubeer@jejubeer.co.kr www.jejubeer.co.kr @jejubeerofficial @jejubeerofficial BREWED IN JEJU, KOREA JEJU BEER COMPANY

클럽디 보은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속중초로 386
안내 info_boeun@clubd.com 전화 043-540-8888
예약 booking_boeun@clubd.com 팩스 043-540-8889

클럽디 속리산

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평각상장로 230
안내 info_songnisan@clubd.com 전화 043-540-8000
예약 booking_songnisan@clubd.com 팩스 043-544-9600

클럽디 금강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30
안내 info_geumgang@clubd.com 전화 063-720-7700
예약 booking_geumgang@clubd.com 팩스 063-720-7799

클럽디 거창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감악산로 398
안내 info_geochang@clubd.com 전화 055-945-2222
예약 booking_geochang@clubd.com 팩스 055-945-6060



www.clubd.com

CLUBD